

‘해금골드키위’ 논란…느닷없이 ‘상표 도둑’ 내몰린 농민들

전남도농기원 개발한 품종…영농법인이 2024년 상표권 등록하며 제재
유통업체 50여 곳에 표기 삭제 등 요구 내용증명 발송…농민들은 ‘황당’
농기원 “누구나 쓸 수 있게 법적 대응”…영농법인 “심사 거쳐 상표 등록”

전남도농업기술원(전남농기원)이 공공 연구로 개발, 농민들에게 넘겨준 키위 품종 ‘해금골드키위’와 관련, 한 민간 영농법인이 상표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유통업체와 농가가 하루아침에 ‘상표 도둑’으로 몰리고 있다.

해당 법인이 ‘해금’ 품종에 대한 표기 권한을 독점하고 ‘해금’ 키위를 팔던 농민들을 상대로 소송전을 예고하면서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해금’을 ‘해금’이라 부르지 못하게 됐다”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5일 전남농기원에 따르면 ‘해금골드키위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24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상품명에 ‘해금골드키위’라는 명칭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전남 지역 50여개 유통업체에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해당 문서에는 ‘상품명에 법인 측이 소유한 ‘해금골드키위’라는 표기가 포함돼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판매 중단과 표기 삭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일정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판매금지 가져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경고도 포함됐다.

해금골드키위영농조합법인은 해금 골드키위 수매·유통 법인 중 한 곳으로, 지난 2024년 말 ‘해금골드키위’를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했다. 상표권을 등록하면 제품 광고 및 설명, 이미지 등에서 ‘해금골드키위’ 문구를 쓸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유통업체들은 당장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 페이지에서 ‘해금골드키위’ 문구를 내리

거나 상품명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하루아침에 품종명을 밝히지 못하게 되면서 판매량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어떤 품종인지 알려야 신뢰를 갖고 구매하는데, 품종명을 쓰지 못하면 정상적인 유통이 어렵다”며 “골드키위만 해도 여러 품종이 있는데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하는 것, 판매량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로 돌아간다”고 토로했다.

완도에서 유기농 해금키위를 비롯해 비파, 유자 등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김진태(50)씨는 “해금키위라고 썼다가 빼라고 해서 그냥 골드키위라고 썼다. 나중에 골드키위라고도 못 쓰게 하면 노란키위라고 해야되는 건가 싶다”며 “농기원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내용은 품종의 명을 못 쓰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보성에서 해금을 재배하는 이춘연(75)씨는 “하루아침에 해금을 해금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됐다. 재배는 할 수 있는데, 품종 이름 그대로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며 “판매량 감소 등 현장에서 감당하는 피해가 크다. 하루빨리 정

리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해당 법인의 상표권 행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전남농기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키위 ‘해금’ 품종은 지난 2007년 전남농기원 과수연구시험장이 개발한 국산 골드키위로, 농기원이 지난1994년부터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에서 참다래 유전자원을 수집해 교잡, 2007년 국립종자관리소에 품종보호 출원까지 했다.

전국 키위 재배 면적(1000여ha) 중 522ha가 전남에 집중돼 있는데, 해금 품종 재배 면적만 180ha에 달한다는 게 전남농기원 설명이다.

농기원은 전남에서 키위를 재배하는 농가는 900여곳으로, 이 중 500여 농가가 해금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남농기원 과수연구소도 법률 검토를 통해 ‘해금골드키위’ 상표권 자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골드키위’는 키위 종류를 뜻하는 보통명칭이고, ‘해금’은 품종 등록명 명칭이어서 이를 결합한 ‘해금골드키위’는 특정 브랜드라기보다 “해금 품종의 골드키위”라는 상품 설명에 불과하다는 법률 자문

도 받았다.

또 상표법상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전남농기원은 설명했다.

전남농기원 관계자는 “‘해금골드키위’ 표장을 20만원 수준에 10년 동안 쓰도록 했는데, 사실상 ‘공짜’ 아니냐”면서 “법인이나 농민 누구나 ‘해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이나 상표 무효심판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취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내용증명을 보낸 해금골드키위영농조합법인 양덕만 전 대표는 “해금골드키위는 우리가 심사를 거쳐 등록받은 상표로, 해금 품종 재배를 막겠다는 게 아니라 등록상표인 ‘해금골드키위’를 유통·온라인 판매시 쓰는 걸 중단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또 과거 전남도측 표장을 돈을 내고 임대 형태로 10년 사용해왔고 그 과정에서 브랜드를 키위한 점 등을 들어 이미 받은 상표권을 빼앗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137명에 전세보증금 95억 뜯은 일당, 수법 살펴보니

선순위 근저당 말소 등 속여 보증금 ‘꿀꺽’

사채·대출금 등 부채 끌어와
아파트 대량 매수 청년 대상 사기
공인중개사 등 징역 3~10년 선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이 돌아갈 수 있게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시켜 준다는 등 말로 20~30대 청년들을 속여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징역 3~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최근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속출<광주일보 2025년 12월 31일 6면>하고 있어 피해가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법선운 부장판사는 5일 ‘무자본 캡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공인중개사 A(41)씨와 인테리어 업자 B(48)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법인 부동산업자 부부와 공인중개사 등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3~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법인을 세우고 순천시 조례동의 한 아파트 218채를 매수한 뒤, 137명으로부터 보증금 9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채, 대출금 등 부채를 끌어와 단기간에 대량의 아파트를 매수한 뒤, 전세로 임대해 주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세운 법인은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했지만, 설립 이후 3년 동안 누적 손실이 7억 4000만원에 달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20~30대 임차인을 중심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를 의심하는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선순위 근저당권,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속인 뒤, 약속을 어기고 보증금만 편취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2020년대 초반 부동산 호황기에 전세대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 매물이 대부분 10여평 소규모 주택이라는 점 등에서 등기로 부채 등을 확인하고도 범행 의심을 하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가 전반적인 아파트 매수와 관리 역할을 맡고, C씨는 매수 아파트의 인테리어와 법인 대표이사 명의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피고인들은 자금 관리, 사무실 마련 및 아파트 매수인 명의 제공, 임차인 모집·중개 등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아파트에서는 최근 임차인 12가구가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 4800만~7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재발하기도 했다. 해당 임대인은 아파트 30여채를 소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는 2794세대 규모로 619세대는 법인, 2175세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아~ 방학이다 5일 방학식을 맞은 광주시 북구 일곡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알림장과 급우들끼리 나누는 롤링페이퍼를 들고 방학을 자축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尹 체포 방해 혐의 변론 오늘 재개…16일 선고 영향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 기

일을 추가로 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직권으로 재개하는 것으로 그 재개 사유에 대해서는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변론

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추가로 확보된 증거를 검토해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추가 변론 기일 지정에 따라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도 미뤄질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

조희,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크!
바로 바로 확인까지 크!



zgm.the pay 카드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10대·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치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암혁신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정) 062)364-8400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